

KILPS 소비 문항에 관한 소고(小考)

최 효 미*

I. 머리말

현재 9차년도 실사가 완료된 KLIPS는 국내의 대표적인 패널조사로서, 가구의 경제활동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KLIPS의 가구설문은 가구원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가구의 소득, 지출, 저축, 부채, 자산, 사적 이전, 주거환경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 가계경제에 관한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발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KLIPS의 가구소득이나 소비변수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KLIPS의 소득액과 소비액이 통계청의 「가계조사」에 비해 낮기 때문에 제기되는 문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가계조사」가 매월 가계부 기장방식으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차이를 보이는 KLIPS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들 조사간의 차이를 이해한다면 이러한 오해는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¹⁾

이에 본고는 KLIPS의 소비 문항이 지닌 장점과 단점에 대해 고찰해 보고, 향후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외국 패널 자료들과의 비교를 통해 KLIPS의 소비 관련 설문 문항의 적절성을 점검해 본다. 또 KLIPS와 「가계조사」를 비교해 봄으로써, KLIPS의 생활비가 지닌 문제와 한계를 진단해 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KLIPS의 생활비 항목을 활용한 예로 불평등 지수를 산출해 볼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팀 책임연구원(chm@kli.re.kr).

1) 이미 소득에 대해서는 KLIPS와 「가계조사」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음이 밝혀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성재민,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소득자료특성」, 『노동리뷰』, 2006년 2월호를 참조하기 바란다.

II. KLIPS 소비 관련 설문 문항

KLIPS의 소비 문항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구용 설문의 생활비 관련 문항들이다. 그러나 이 외에도 KLIPS의 가구용 자료에는 가계의 지출과 관련된 보다 풍부한 정보가 들어 있다. 예를 들어 「자녀교육과 관련한 섹션」에서는 사교육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으며, 「부채 섹션」에서는 부채 상황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따로 사는 부모님 관련 섹션」을 통해서도 따로 사는 부모님께 드린 경제적 지원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표 1 참조).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가계지출이란 이들 항목을 모두 고려한 값²⁾일 것이다. 그러나 논의의 편의상 본고에서는 생활비에 국한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표 1> KLIPS 그 외 가계지출 조사 항목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사교육 이용 비용	○	×				○			
부채 상환금					○				
따로 사는 부모님과의 경제적 교류		×					○		
주거비 중 월세금					○				

KLIPS의 생활비 항목은 가계지출과 관련한 핵심 변수로 1차년도 조사부터 매해 조사되어 왔다. 다만, 1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생활비를 세부 항목별로 묻지 않고 월평균 총액만 조사하였다. 반면 2차와 4차~8차년도에는 월평균 생활비 총액과 함께 항목별 생활비를 물었다. 생활비의 세부 항목들은 매해 조금씩 추가되고 수정되어 8차년도에는 식비, 외식비를 비롯한 총 17개 항목에 대해 조사가 실시되었다.³⁾ 각 해에 조사된 생활비 항목들은 <표 2>와 같다.

KLIPS의 생활비는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지불된 돈’을 의미하므로, 저축과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⁴⁾은 생활비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혼수장만이나 교통사고 보상금 지불과 같이 특별한 일로 인해 지급된 돈도 생활비에서는 제외된다. 이로 인해 다른 조사에 비해 KLIPS의 생활비가 다소 낮게 추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8차년도부터는 생활비가 가구소득보다 더 많다고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묻

2) 생활비 항목과 겹치는 항목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즉 사교육 이용 비용 등은 생활비의 사교육비 항목과 중복되며, 월세금은 생활비의 주거비 항목과 중복되는 항목이다.

3) 9차년도에는 기존의 ‘용돈’ 항목을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 ‘자녀 용돈’, ‘그 외 가구원의 용돈’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고, ‘생필품 구입비’가 추가되어 총 20개 항목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축과 부채는 별도의 섹션으로 구분하여 질문하고 있다.

고 있다.

<표 2> KLIPS 각년도 생활비 조사 항목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식비 (주식비와 부식비)									
외식비									
공교육비(학교등록금, 납입금 등)									
사교육비(학원, 과외비 등)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포함)									
주거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등)		○		○	○	○	○	○	○
경조사비									
보건의료비									
문화비(TV시청료, 취미·여가 등에 들어가는 돈) * 8차년도부터는 '교양오락비'로 명칭 변경								명칭 변경	
내구재(전자제품이나 가구구입비)	×		×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				추가					
용돈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								
	자녀 용돈				추가			○	문항 세분
	그 외 가구원의 용돈								
피복비(옷, 신발 등의 구입비)		×		×		추가			
현금 및 각종 기부금					×				○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	추가		
대중교통비									
생필품 구입비							×	×	추가
기타		○		○	○	○	○	○	○
월평균 총액	○	○	○	○	○	○	○	○	○
부족한 생활비 마련방법	×	×	×	×	×	×	×	×	○

출처 : 「한국노동패널 1~7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및 「8~9차 노동패널 설문지」

III. 외국 패널들과의 소비 항목 비교

KLIPS와 외국의 다른 패널조사간 소비 문항은 구조나 문항면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특징적인 점은 PSID나 BHPS는 소비에 관한 별도의 섹션을 두지 않고, 설문 중간중간에 가구의 지출을 묻는 형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즉 면접원이 현재의 주거환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문하면서 월세액과 난방비를 질문하는 방식이다. 반면 KLIPS나 JPSC의 경우에는 생활비를 묻는 섹션을 따로 두고 있다.

<표 3> 조사되는 소비 항목 비교

(단위 : 개)

		KLIPS	BHPS	PSID	JPSC	GSOEP
생활비	식비 (주식비와 부식비)	1	1 + △	2	1	
	외식비	1		1		
	공교육비	1		1	0.5	
	사교육비	1		2	5.5	▼
	차량유지비	1		7	0.5	
	주거비	1	5 + △	5.5	2	2
	경조사비	1				
	보건의료비	1		4	1	
	교양오락비	1	△	2	1	
	내구재 구매비	1	12 + ▼		1	▼
	통신비	1		1.5	1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	1			2	
	자녀 용돈	1				
	그 외 가구원의 용돈	1			1	
	피복비	1	△	1	1	
	헌금 및 각종 기부금	1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1	△	1	3	
	대중교통비	1		4	0.5	
	생필품 구입비	1				
기타	1					
부채	대출 관련 지출	5	1	1	1	1
총 계		25	20	35	22	3

주 : 1) 숫자로 표시된 부분은 액수를 묻는 문항의 수를 의미하며, △ 표시가 된 문항은 부담여부를, ▼는 보유와 구매여부를 묻는 문항을 의미함.

2) BHPS는 2005년 설문을 기준으로 했음.

3) PSID는 1968-2005년까지의 한번이라도 질문한 적이 있는 모든 변수를 포함함. 보건의료비는 항목별 문항과 의료보험료를 포함하는 총액 문항이 있음. other utility라는 항목은 주거비와 통신비가 복합된 항목이므로 0.5로 계산. PSID에서 자동차를 보유하기 위해 지출되는 항목, 예를 들어 lease비용 등은 차량 유지비로 구분함.

4) JPSC의 경우 1999년도 설문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부모님 용돈의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 용돈까지 포함됨. JPSC는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는 세금을 포함하는 문항임.

5) GSOEP는 2006년 가구용 설문을 기준으로 함.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외국 패널의 경우 측정기간의 단위가 항목에 따라 변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BHPS의 경우, 식비는 주당 평균 금액을, 내구재 구매비는 연간⁵⁾ 총액을 묻는데, 이는 응답자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러한 방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계지출과 관련한 항목이 설문 전반에 걸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는 달리 KLIPS의 경우에는 모든 금액을 월평균 금액으로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응답자가 120만 원짜리 내구재를 구입했다면, 12개월로 나눈 값인 10만 원을 기입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문항별로 단위가 바뀌면서 오는 혼란은 줄일 수 있지만, 응답자의 응답 부담을 늘리는 부작용이 있다.

외국의 패널조사들 중에서 가계소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질문을 포함하고 있는 조사는

5) 정확하게는 “지난해 9월 1일 이후” 금액을 의미한다.

PSID이다. PSID는 총 35개 항목에 걸쳐 가계소비를 조사하고 있는데, 특히 자동차에 지불되는 비용과 의료비, 주거비 등에 대해 상세하게 질문하고 있다. 반면 내구재 구입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있다. 반면 BHPS는 내구재 구매비나 주거비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외의 다른 생활비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다만, 각각의 문항으로 구분된 피복비, 난방비, 여가비 등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지를 묻고 있다.⁶⁾ 한편 JSPC는 그 구조나 설문 내용에서 KLIPS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다만, JSPC가 생활비 섹션에서 보육비에 대해 자세히 묻고 있는 데 반해, KLIPS는 사교육과 관련한 별도의 섹션을 통해 세부적인 사교육비를 조사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 외에 GSOEP은 집세, 난방비, 이자 상환금에 대해 조사하며, 내구재는 보유하고 있거나 구입한 적이 있는지, 사교육은 하고 있는지만을 질문한다. 호주의 HILDA의 경우에는 가구소비에 대한 문항이 없으며, 단지 보육비가 파악 가능한 정도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KLIPS가 외국의 어떤 패널조사보다도 많은 생활비 항목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KLIPS의 경우 사교육비는 사교육 섹션에서, 대출금의 상환은 부채관련 섹션에서 더욱 깊이 있게 조사하고 있어, 가구의 전반적인 소비를 파악하는데 매우 강력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다만, KLIPS의 경우 자동차 구매와 관련한 비용이 애매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⁷⁾

IV. 가계조사와 KLIPS의 생활비 비교

본절에서는 가계조사⁸⁾와 KLIPS의 생활비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가계조사는 1963년부터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사로 약 7,500가구⁹⁾를 대상으로 가계부 기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조사이다. 따라서, 도시가계조사는 가구의 소비에 대한 대단히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가계조사」의 생활비¹⁰⁾가 KLIPS에 비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6) KLIPS의 경우에는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항목”(복수응답)을 별도의 문항으로 구분하여 질문하고 있다.

7) 자동차를 신용카드 할부로 구매했을 경우는 부채(항목은 구분 안됨)로 조사가 되고 있으나, 현금 구매의 경우 내구재 구매비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자동차 구매를 내구재 구매로 볼 것인지의 응답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8) 2003년 이전에는 도시가구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도시가계조사라 하였으나, 2003년에 표본을 전국단위로 확대하면서 가계조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9) 2005년 전국가구의 조사대상 가구수는 7,366가구이며, 이 중 도시근로자가구는 3,554가구이다. 2003년 이후 조사의 범위는 전국에 거주하는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나, 농가, 어가, 단독가구, 가계수지파악이 곤란한 가구, 외국인 가구는 제외되었다.

<표 4> KLIPS와 가계조사의 생활비 총액 추이 비교

(단위: 만 원)

	KLIPS			가계조사	
	전 체	1인 가구 제외	농림 어업 가구 제외	도시 2인 이상 가구	전국가구
1998	100.1	105.7	107.4	131.6	-
1999	106.2	113.6	115.8	147.9	-
2000	114.7	121.9	123.9	163.2	-
2001	133.3	143.1	145.8	176.2	-
2002	147.7	159.4	161.8	183.5	-
2003	158.4	171.8	174.3	192.3	186.2
2004	163.5	178.7	180.8	201.8	196.3

주: KLIPS의 생활비는 월평균생활비 총액을 기준으로 한 값으로, 항목별 생활비 총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단, 항목별 생활비 총합과 월평균생활비의 격차는 크지 않으므로, 별도의 결과를 제시하지 않음. 가중치는 사용하지 않음.

자료: KLIPS '2차~8차 년도 데이터'(8차 학술대회 자료) 및 통계청 「2004 가계조사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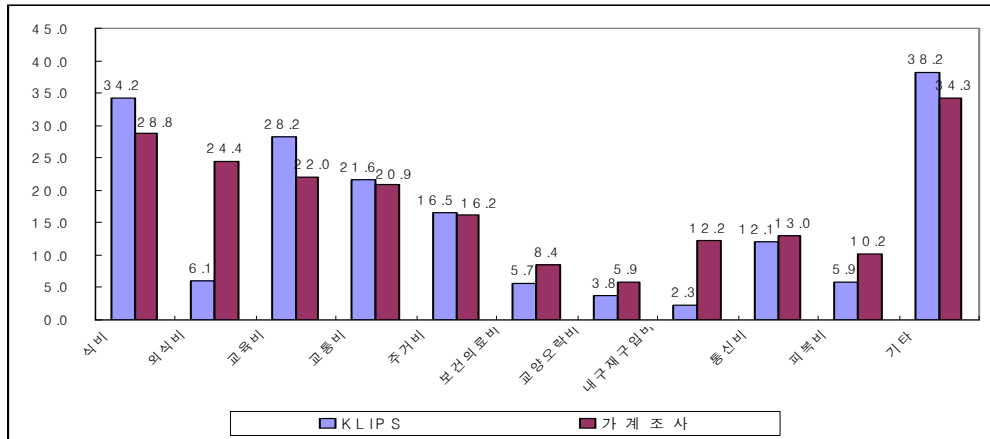
있다. 「가계조사」의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생활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국가구의 경우에도 비교적 높은 생활비를 보였다. 반면 KLIPS의 전체가구의 평균생활비는 2004년에 163만5천 원으로 가계조사의 전국가구에 비해 무려 32만8천 원이나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1)

다만, 가계조사의 전국가구라 하더라도 단독가구, 농어가 가구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조건을 통제할 경우 KLIPS와의 격차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KLIPS 전체 표본에서 1인 가구를 제외하면 2004년 월평균 생활비는 178만7천 원으로 그 격차가 크게 줄어들며, 이에 더해 농어가 가구를 제외할 경우 월평균 생활비는 180만8천 원까지 증가한다. 하지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KLIPS의 생활비가 가계조사에 비해 10만~20만 원 가량 낮은 것¹²⁾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KLIPS와 가계조사의 생활비가 차이나도록 만드는 항목은 무엇일까? [그림 1] [그림 1] KLIPS와 가계조사 생활비의 항목별 금액 비교

(단위: 만 원)

- 10) 가계지출액 중에서 소비지출에 해당하는 항목만 고려했다.
- 11) 1차년도의 경우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의 월평균 생활비를 묻고 있는 데 반해, 2차년도 이후에는 “작년 한 해”의 월평균 생활비를 질문하였으므로, 1차년도와 2차년도 생활비 간의 기간이 겹치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본고는 1차년도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12) KLIPS의 월평균 생활비에는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가 포함된다. 반면 가계조사에서는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이 비소비지출로 분류되므로, 이들 조사간의 생활비 격차는 이보다는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주: KLIPS의 생활비 항목 구분 기준에 따라 가계조사의 항목을 재조정하여 산출한 값임.
 자료: KLIPS 8차 학술대회 자료 및 통계청 「2004 가계조사연보」

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 외식비이다. 이처럼 KLIPS의 외식비가 「가계조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이유는 두 조사간의 생활비 분류방법의 차이에 기인한다. 다시 말해 「가계조사」의 경우 외식비를 “식당에서 지불한 금액 일체”라고 정의하고 있어 직장인들의 점심 식사비 등이 모두 외식비에 포함된다. 반면 KLIPS는 일상적인 식사에 해당하는 금액은 식비로 분류하고, 특별한 기념일, 행사, 가족들과의 외식 등을 외식비로 보고 있다. 이때 식비와 외식비의 합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KLIPS가 오히려 12만9천 원 가량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KLIPS는 보건의료비나 교양오락비¹³⁾, 내구재 구입, 피복비 등이 「가계조사」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내구재 구입비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는데, 이처럼 KLIPS의 내구재 구입비 등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KLIPS가 가구의 구매관련 지출을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KLIPS는 연간 조사로 지난 한 해 동안의 생활비 지출을 응답자가 기억을 반추하며 월평균으로 계산하여 응답하는 방식이다. 반면 가계조사는 매월 조사할 뿐 아니라, 가계부 기장방식에 따라 조사하므로 구매관련 지출을 누락시킬 위험이 KLIPS에 비해 현저히 낮다. 둘째는 가계조사의 소비지출에는 자녀의 혼수 비용, 상제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일상적인 생활비만을 조사하는 KLIPS에 비해 높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교통비, 주거비, 통신비와 같이 매달 일정하게 지출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KLIPS나 가계조사의 금액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13) 가계조사의 경우 보건의료비에 보건의료기구 구입비가 포함되고, 교양오락비에 악기나 스포츠용품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는 데 반해, KLIPS는 위와 같은 물품의 구입을 내구재 구입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제시된 값은 KLIPS의 기준에 맞춰 가계조사의 값을 재산출한 것이다.

요약하면, KLIPS의 경우 조사의 특성상 구매와 관련된 지출이 상당 부분 누락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일상적인 생활비 지출은 비교적 정확히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응답자의 편의를 고려하면서도 생활비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BHPS와 같이 내구재 구매와 관련한 별도의 설문을 추가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V. 생활비를 활용한 소비 불평등 지수

이 절에서는 KLIPS의 생활비를 사용한 불평등 지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¹⁴⁾ 일반적으로 불평등 지수는 소득을 이용하여 산출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소득과 함께 소비액을 변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개인의 후생이 소득보다는 소비를 통해서 더 잘 반영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회의 불평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지표로는 10분위 분배율과 지니계수, 로렌츠 곡선, 앳킨슨 지수 등이 있는데, 본고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10분위 분배율과 지니계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0분위 분배율은 개인을 소비 순위에 따라 10등분한 후 하위 4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평균 소비액을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평균 소비액으로 나눈 값, 즉 $\frac{\text{하위40\%의 평균소비액}}{\text{상위20\%의 평균소비액}}$ 이다. 그러므로 10분위 분배율은 높을수록 평등하게 분배가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지니계수는 소득분배균등선과 가로축(소비 누적액), 세로축(개인수)이 이루는 삼각형의 면적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 비율이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의 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표 5>와 [그림 2]에 따르면, 1998년에 0.327였던 지니계수는 점차 감소하다가 2002년에 0.315로 높아졌다. 그러나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04년에는 0.296에 그쳤다. 반대로 10분위 분배율은 점차 증가하다가 2002년에 26.2로 떨어진 후 다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KLIPS 조사 초기 비교적 높았던 소비의 불평등도는 점차 낮아지다가 2002년에 다소 악화되었지만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불평등 지수

(단위: 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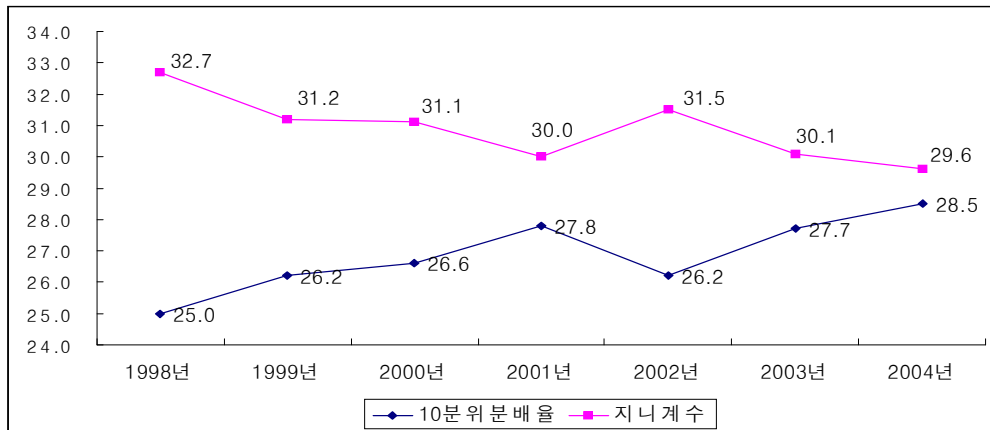
14) 생활비에 관한 기초적인 특징은 기초보고서인 「한국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본고에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았다. 예를 들어, 7차년도 기초보고서의 p.82에서는 항목별 생활비의 차수별 추이 및 소득계층별 생활비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분위별 평균 생활비	1분위	40.0	45.1	43.7	53.3	58.4	66.0	70.2
	2분위	69.2	77.8	77.4	96.4	106.5	116.4	124.0
	3분위	93.6	104.8	103.8	130.4	144.1	158.0	163.5
	4분위	121.7	144.2	136.7	169.2	187.5	205.0	211.3
	5분위	218.3	225.3	228.0	269.4	315.1	328.9	340.0
10분위 분배율		25.0	26.2	26.6	27.8	26.2	27.7	28.5
지니계수		0.327	0.312	0.311	0.300	0.315	0.301	0.296

주: 각년도 항목별 생활비 총합을 이용하여 산출함. 단 3차년도(1999년)는 항목별 생활비가 조사되지 않았으므로 월평균 생활비를 사용함.

[그림 2] 10분위 분배율과 지니계수

(단위: %)



주: 편의상 지니계수*100의 값을 사용함.

VI 맺음말

지금까지 KLIPS의 생활비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KLIPS의 생활비 항목은 지속적으로 보완개선되어 왔으며, 8차년도에는 총 19개의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같은 설문 구성은 충분치는 않을지라도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KLIPS는 월평균 생활비와 17개 항목에 대한 생활비, 그리고 부족한 생활비 마련 방법 등을 질문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의 다른 패널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다. 물론 자료의 특성에 따라 특정 항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들도 있다. 예를 들어, BHPS는 내구재 구매나 주거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PSID는 자동차에 지불되는 비용과 의료비, 주거비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료들은 다른 생활비 항목에 대해서는 파악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KLIPS는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알 수 없지만, 생활비 항목 전반에 걸쳐 조사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KLIPS와 「가계조사」의 생활비를 비교해 본 결과, KLIPS가 10만~20만 원 가량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항목별로는 외식비와 내구재 구입비 등이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항목의 분류방법과 조사방법의 차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교통비, 주거비, 통신비와 같이 매달 일정하게 지출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KLIPS나 가계조사의 금액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KLIPS 생활비 항목을 이용하여 불평등 지수를 계산해 본 결과, 조사 초기 비교적 높았던 소비의 불평등도는 점차 낮아지다가 2002년에 다소 악화되었지만,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KLIPS는 비교적 많은 항목의 생활비를 조사하고 있으며, 주거비나 교통비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비 지출은 비교적 정확히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조사 특성상 구매와 관련된 지출이 누락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KL**